

## 그릿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홍승희<sup>1</sup>, 현용찬<sup>2</sup>, 박정환<sup>3\*</sup>

<sup>1</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생, <sup>2</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sup>3</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Domestic Research Trends on Grit

Seung-Hee Hong<sup>1</sup>, Yong-Chan Hyun<sup>2</sup>, Jung-Hwan Park<sup>3\*</sup>

<sup>1</sup>Studen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Lecture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3</sup>Professo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지적 주제인 그릿(Grit)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파악하고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그릿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RISS'의 국내학술논문 중 KCI등재 및 KCI우수등재 그릿(Grit) 논문을 중심으로 사전에 설정된 기준(연도별 학술지 게재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3개의 그릿 논문이 검색되었고, 국내 학술지 92곳에 게재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은 대학생 연구가 88건(43.3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180건(88.6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양적연구 방법으로는 그릿과 다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매개효과, 차이 검증 및 조절효과 검증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2017년 이후 연구가 진행되어 그릿 개념, 그릿 척도 개발 및 그에 따른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내 그릿 발전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그릿, 연구동향, 교육현장, 비인지, 사회정서 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Grit research by analyzing domestic research trends on Grit, which is a non-cognitive subject that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in Korea recently in order to grasp the achievements so far and to seek directions for research. The analysis method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pre-set criteria (annual publication status,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research topic, etc.) which were focusing on KCI listed and KCI excellent Grit papers among domestic academic papers of 'RISS'. As a result of the study, from 2013 to 2019, a total of 203 papers were searched and published in 92 domestic journals. Beside that, the subjects of the study, 88 cases (43.35%) were college students and 180 cases (88.67%) were quantitative studies as the research method. So, the most common research method was quantitative research.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other variables, mediating effect, difference verification, and moderation effect verification were shown in order, and qualita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2017 to develop the concept of Grit, the Grit scale, and the corresponding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ducational field by presenting the implications of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Grit in Korea.

**Key Words** : Grit, Research trend, Educational field, Non-cognitive, Social-emotional competence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edu114@jejunu.ac.kr)

Received April 19, 2021

Revised May 21, 2021

Accepted June 20, 2021

Published June 28, 2021

## 1. 서론

그릿(Grit)은 2007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심리학교수인 Angela Duckworth 등이 제안한 개념이다[1]. 그릿은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로 정의된다. 즉 그릿은 열정과 인내를 발휘해 재능을 기술로 바꿀 수 있게 하는데, 그 재능을 기술로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갈고닦아야 한다[2]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릿의 핵심 요소인 열정과 인내는 각각 흥미유지(consistency of effort)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흥미유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목표나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특성, 노력지속은 목표달성을 위해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3].

Duckworth 등의 연구로 시작된 Grit은 국내에도 KCI 등재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수란 등의 연구에서 그릿('투지'로 사용함) 개념을 국내에 소개한 이래[4]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교육현장에서 최근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비인지적 특성 중의 하나가 그릿이다[5]. 그릿은 군대, 학교, 직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요인이다[1]. 지능 등 선천적 재능과 상관없이 성과를 예측하고, 인지적 특성에 비해 비교적 변화가 용이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6].

그릿은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개인을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거나 또는 인재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릿은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진정한 목적의식을 가지며, 위기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한다[3]. 이러한 이유로 OECD에서는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발전을 넘어 웰빙, 시민참여 등 개인행복과 사회진보를 예측하는 사회정서 역량의 하나로 그릿 역량을 추가하기도 하였다[6].

그릿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임효진[6]은 그릿의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릿 개념의 재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릿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uckworth 등이 제안하고 국

내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릿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김우철 등[7]은 HRD 및 기업교육 분야에서 그릿과 학습의 관계를 밝히는 통합적인 문헌연구의 필요성 및 그릿이라는 변수의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실천 분야의 시사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학습 뿐 아니라 그릿에 대한 연구 전반을 탐색하고자 한다.

서미옥[5]은 그릿과 관련 변인들의 평균효과 크기를 고찰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그릿과 관련변인들의 평균효과 크기가 대부분 유의하였음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메타분석을 위해 질이 확보된 논문을 선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의 그릿 전반에 대한 동향을 분석할 것이므로 가능한 모든 논문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RISS'의 국내학술논문 중 2013년부터 2019년까지 KCI등재 및 KCI우수등재 그릿 논문을 수집하여 사전에 설정된 기준인 연도별 학술지 게재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결과를 분석·연구하고자 한다[5-8]. 그리고 그릿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릿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릿 부문 연구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릿에 관한 국내의 전반적인 연구동향 탐색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둘째, 그릿에 관한 국내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인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 및 결과에 어떠한 양상과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최근까지의 그릿 연구동향 분석 결과가 그릿 부문 연구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 2.1 분석대상 논문의 조사방법

분석대상연구의 자료수집은 'RISS'에서 국내학술논문 중 KCI등재 및 KCI우수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기는 국내에서 그릿 관련 연구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전에 설정된 분석 기준(연도별 학술지 게재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별 연구주

제)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 그릿(Grit), Grit, 그릿(투지), 투지(Grit) 등의 용어로 검색하여 나온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다. 1차 검색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술 논문에 포함된 것은 다시 찾아 포함하였다.

둘째, 수집한 자료는 국문초록을 이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영어로 검색된 국내학술지 논문은 다국어 번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의료, 경영, 스포츠 등 다방면의 자료를 포함하였지만 분석대상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는 원 논문을 통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중복된 내용 및 연구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논문, 국내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지만 외국에서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다룬 논문, 본 연구와 동떨어진 주제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국내 학술지 논문 203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논문의 예시 및 논문 수를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Final analysis paper

Year	Final thesis	Number of papers
2013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1
2014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1
2015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5
2016	The Relationship among Grit,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 and Academic Self-Regula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7
2017	The Current State of Grit Research and its Need for Reconceptualization	24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between grit and self-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68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riarchic Grit Scale	97

그릿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으나 연구동향과 직접 관련된 논문은 소수이지만 분석의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에 대한 연구동향[6,7]과 메타분석[5]에서의 분석틀, 신현식의 분석틀[8]을 참고하여 임의로 재구조화된 분석틀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framework

Division		Research Content
In general Research Status	Analytical Paper Information	Number of papers published by publication year from 2013 to 2019
	Method of conducting research	Independent research, joint research
	Publication of thesis	Publication of thesis
	Overall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 by year
Research subje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junior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dults, mixed and other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A study that analyzed statistics such as relationship verification,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moderation effect verification, and difference verification using statistical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in-depth interviews, integrated literature research, observations of phenomena and research using techniques, etc.
	Mixed research	A study that combin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Research purpose And results	Quantitative research	Statistical influence, prediction, relationship, mediation, control, identification of differences, etc.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trend analysis, concept and component search, utilization strategy, etc.
	Mixed researc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conceptual map research, characterization, etc.

분석틀은 일반적 연구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목적 및 결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연구현황에서는 분석논문 정보, 연구수행 방식, 논문 게재 학술지, 연도별 연구방법을 다뤘다.

연구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대상이 혼합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의 방법을, 연구 목적 및 결과는 목적에 따른 구체적 결과를 밝혔다.

## 2.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그릿은 Duckworth 연구[3]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열정(관심에 대한 지속성)과 인내(노력에 대한 인내)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전반의 그릿의 의미와 다양한 그릿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 그릿의 연구동향은 그릿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의 동향을 의미하며 선행연구[5-7]를 참고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전반적인 연구현황

설문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 연도별 학술지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고, 총 203개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2013년 1편(0.49%), 그 후 2014년 1편(0.49%), 2015년 5편(2.46%), 2016년 7편(3.45%), 2017년 24편(11.82%), 2018년 68편(33.50%), 2019년 97편(47.79%)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에는 그릿 전체 연구의 과반수에 가깝게 연구되기도 하였다.

Table 3. Journal publication status by year

Issuanc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m
Published (N)	1	1	5	7	24	68	97	203
ratio(%)	0.49	0.49	2.46	3.45	11.82	33.50	47.79	100

설문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 연도별 연구수행 방식을 분석해 보면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독연구는 60건으로 29.56%를 나타냈고, 공동연구는 143건으로 70.44%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단독연구에 비해 공동연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practices by year

Issuanc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m
Exclusive			1	1	10	18	30	60
ratio(%)			0.49	0.49	4.93	8.87	14.78	29.56
public	1	1	4	6	14	50	67	143
ratio(%)	0.49	0.49	1.97	2.96	6.90	24.63	33.00	70.44

설문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 학술지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총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한국체육과학회지'에 8편, '디지털융복합연구', '교육학연구' 및 '청소년학회', '한국심리학회지'에 각 7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등에 4~6편이 게재되었다. 나머지 134편은 '교육과학연구' 등에 1~3편씩 게재되었다. 그릿을 개재한 전체 학술지 수는 92개이며, 1편만 등재된 학술지도 53개 학회로 나타나 57.61%에 이르고 있다. 그릿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가 많은 학술지에 등재된 것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그릿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tailed research method by year

Research method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m(%)
1)			2	1	6	10	9	28(13.79)
2)					1	4	9	14(6.90)
3)					7	16	36	59(29.06)
4)		1	3	6	8	30	31	79(38.92)
5)	0	1	5	7	22	60	85	180(88.67)
6)					1	4	6	11(5.42)
7)	1				1	4	6	12(5.91)
Sum	1	1	5	7	24	68	97	203(100)

음영부분 1)-4)는 양적연구임. 1)차이검증, 2)조절효과, 3)매개효과, 4)구조관계, 5)양적연구 합계, 6)질적연구(문헌연구), 7)혼합연구임.

양적연구는 180편 88.67%로 나타났고, 문헌연구를 포함한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는 각각 11편, 12편으로 5.42%, 5.91%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각 연구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질적연구는 2017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혼합연구도 2013년에 시작된 이래 연구가 없다가 2017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3.2 그릿 연구동향의 양상과 특성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 결과는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에서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earch target analysis

Research subject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m
Elementary			1	2	3	4	8	18
Middle						3	7	10
High school	1		2	3	2	7	6	21
College		1		2	12	29	44	88
Synthesis adult			1		1	8	4	14
			1		3	16(7)	20(10)	40
Etc					2		4	6
Sum	1	1	5	7	23	67	93	197

연구대상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초등학생 18건, 중학생 10건, 고등학생 21건, 대학

생 88건, 초·중·고·대학생 등 청소년을 복합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것은 14건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 연구는 40건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에 대한 연구도 17건 포함되어 있다. 사관생도, 예비 유아교사, 예비 간호교사 등은 대학생으로 보았고, 직장인, 공공기관 구성원, 현직비서, 성인학습자 등은 성인 으로 보았다. 그릿 자체를 사례로 연구하여 사람을 대 상으로 삼지 않은 연구는 분석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 다. 그릿 연구를 대상별로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성인,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논문의 세부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한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양적연구도 복합적 방법으로 수행된 것들이 있었고, 이런 논문은 제목 및 최종 종속변수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간의 검증방법에서 양적연구는 크게 인과관계를 다룬 그릿의 조절효과[5,9], 매개효과[10,11], 관계(영향 관계 및 예측 포함) 관련 연구가 있고, 관계를 다룬 연구 중 구조적 관계[12,13]를 다룬 논문이 7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 36건, 구조적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검증하는 논문[14,15]은 27건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2017년 이후 연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6,16,17].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그릿 논문 총 203편 중 질적연구는 11편으로 5.41%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릿을 가진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특성을 깊이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혼합연구 역시 2013년, 2017년에 한 편씩 연구되었으나 2018년 이후 이 연구 방법을 채택한 논문 수가 증가되었고[6,18,19] 관련 논문이 12편으로 5.91%를 차지했으나 실제로는 개념분석, 척도개발 및 타당화, 측정조건 탐색을 위한 선행 문헌연구와 설문 분석을 통계적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중 질적연구(선행연구를 수행한 문헌연구 포함)로 분류된 11편에 대한 연구목적 및 연구결과에 따른 분석내용은 Table 7과 같이 요약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Table 7.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author (Year)	Research Objectives and Research Results	Detailed research method
H. J. Lim (2017)	It revealed the recent research trend of Grit and insisted that Grit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Literature research
S. M. Han et (2018)	Presenting four strategies for growing grit in the context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terview
S. M. Han et (2018)	It suggests the social psychological environment skills in which grit is formed and the direction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to nurture grit.	interview
B. R. Lee et (2018)	After analyzing information on the concept of grit, the concept of sports grit is established.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
W. C. Kim et (2018)	As a study on grit and learning, the research results of people with high grit are categorized into four categories.	Literature research
M. H. Hwang (2019)	Revealing the significance of Grit in academic counseling and exploring ways to improve learning counseling	Literature research
H. J. Lim (2019)	Suggested consideration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grit	Literature research
H. B. Park (2019)	Dealing with th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grit and growth mindset	Literature research
J. Y. Lee et (2019)	By defining the nurse's grit concept, it serves as a guideline for developing a nurse's grit reinforcement strategy.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
S. L. Yoo (2019)	Analyze data on how to accept adversity and how these factors relate to persistence.	Interview Observe
J. Y. Lee (2019)	The concept of grit of nursing students was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and the definition of grit of nursing students was revealed.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

먼저 연구목적에 따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릿 자체에 대한 연구동향, 그릿 개념, 그릿 요소 등 그릿 전반에 대한 내용[6,20-22]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수란[4]의 2013년 이후 그릿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릿 개념 및 요소에 대한 연구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스포츠 분야 및 의료 분야에서는 스포츠그릿[20], 간호사의 그릿[22] 등을 통해 각 학문에서의 그릿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시도가 있었다.

다음으로 그릿에 대한 질적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스포츠, 의료, 심리, 상담 등 다양했다.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다룰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분야에서의 학업, 학습, 수업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7,17,21,23,24]가 많았다.

### 3.3 그릿 부문 발전의 시사점

Duckworth 등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분야에 관계없이 열정과 결합된 끈기 즉, 그릿에 있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전 생애에 걸친 심리발달의 성공적 결과들을 이끌거나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을 위한 능력의 하나로 그릿이 제안되기도 하였다[6].

이렇게 중요한 그릇 개념이지만 그릇 부문 연구의 성과로 볼 때 203편의 논문 중 실제 그릇을 키우거나, 그릇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는 거의 없었다. 도덕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이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그릇과 성장 마인드셋 기반 소크라테스식 발문을 구안한 전략 연구가 있었다[24].

따라서 그릇의 개념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그릇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유아기부터도 적절한 자연친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꾸준히 그릇을 키울 수 있다[1,6,25].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가 꽃에 관심을 가진다면 다양한 꽃을 보여 주고, 꽃에 대한 그림책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다. 꽃에 물을 주게 할 수 있고, 꽃을 만져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경험도 갖도록 한다. 더 자라면 식물원에도 데리고 다니며 꽃뿐 아니라 식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줄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도적 관심을 발전 시켜 나가도록 돕는다. 그러나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어야 관심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 데는 필수적으로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행복감, 자신감, 안정감을 갖는다면 그릇이 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릇은 다른 영역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술처럼 (그릇)투지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방식이나 노력과 열정을 키우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그릇을 키울 수 있고, 스포츠, 일반교육 및 영재교육 등에도 그릇은 필요하다[4]. 즉 가정, 학교(학생과 교사),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릇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자는 그릇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그릇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릇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릇 부문 연구발전을 위해 그릇을 향상시키는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국내에서도 그릇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인내, 즉 그릇에 달려 있다[2]고 볼 때 그동안 국내에서의 그릇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성과 및 그릇 부문 연구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는 차후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내 그릇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그릇 연구가 처음 'RISS'의 국내학술논문에 등재된 이래[4] 현재까지 그릇 연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릇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릇의 질적연구는 11편(5.42%)으로 나타나 양적연구 180편(88.67%)에 비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검증방법에서 양적연구는 구조관계, 매개효과, 차이, 조절효과 검증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그릇의 개념, 그릇 척도 개발 및 그에 따른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대한 탐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각 분야에서의 학업, 학습, 수업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릇의 양적연구와 함께 질적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고, 주제 및 내용에 대한 확장성도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릇의 개념으로 볼 때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개인이나 집단의 세부 영역을 좀 더 깊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RISS'의 국내학술논문에 등재된 그릇 연구로 볼 때 시사점은 각 분야의 그릇 프로그램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미흡했다.

그릇 연구는 본 논문에서 2019년까지 92개의 학술지에 게재 되었으나, 2020년 이후에도 정철상[26]이 한국산학기술학회사를 통해 연구하는 등 더 많은 학술지에서도 그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었다. 이렇듯 그릇은 다양한 학술지에 다방면에 걸쳐 연구되고 있다. 대상도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 간호사 등 각종 성인, 노인과 환자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릇은 그만큼 개방성이 있고, 어느 분야에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릇의 개념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그릇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릿 연구를 수행한 203편의 학술 논문을 분석하였지만 주로 초록을 활용하였고, 방대하지만 한계점이 있다.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이라는 용어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투지, 열정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연구가 정착되고 있는 근래에도 투지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의 투지가 그릿(Grit)의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릿의 의미가 열정과 끈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지와 다소 다른 면이 있고,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그릿(Grit)이 영어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릿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면 한다.

둘째,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국내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최근까지의 외국의 그릿 연구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릿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릿 개념을 활용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그릿 개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그릿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 그릿을 사실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REFERENCES

- [1] L. Y. Sanguras. (2019). *Grit in the Classroom*. Seoul : Hakjisa.
- [2] C. B. Feldman. (2019). *GRIT Action*. Seoul : Borabit Cow.
- [3] A. L. Duckworth, C. Matthews, M. D.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4] S. R. Lee, Y. W. Sohn. (2013).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0(3), 349-366.  
DOI : 10.16983/kjssp.2013.10.3.349
- [5] M. O. Suh. (2019).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7(1), 105-130.  
DOI : 10.30916/KERA.57.1.105
- [6] H. J. Lim (2017). The Current State of Grit Research and its Need for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4), 663-681.  
DOI : 10.17286/KJEP.2017.31.4.04
- [7] W. C. Kim, J. Y. Kim, M. J. Park. (2018). Research Trends on Grit and Learning: Analysis of literature found in domestic and overseas academic journals published.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20(2), 77-100.
- [8] H. S. Shin, C. S. Oh. (2013).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Teacher In-service Education : Focus on Research Areas, Themes, and Methods. *The Journal of Koren Teacher Education*, 30(3), 431-462.  
DOI : 10.24211/tjkte.2013.30.3.431
- [9] J. J. Ryu, H. J. Lim. (2018). Moderating Effects of Goal Types in the Relationship among Growth Mindset, Self-Determination, and Gri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2(3), 397-419.  
DOI : 10.17286/KJEP.2018.32.3.04
- [10] H. S. Choi, S. J. Yang. (2018).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105-123.
- [11] E. I. Jeong. (2019). Mediating Effects of Everyday Creativity Between Grit, Optimism and Colleg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9(2), 23-48.  
DOI : 10.36358/JCE.2019.19.2.23
- [12] H. J. Lim. (2017).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rit,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e Think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13(2), 45-65.
- [13] J. Y. Kim.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rit, academic self-efficacy and structural relationship toward university student 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3(4), 233-244.  
DOI : 10.15831/JKSSPE.2019.23.4.233
- [14] K. S. Park. (2018).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youth golf players Implications for Grit level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171-187.  
DOI : 10.21509/KJYS.2018.11.25.11.171
- [15] K. H. Kim. (2019). Differences in Media Literacy, Grit, and Metacognition Strategy-Comparison of Personality Type-.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2(1), 169-178.  
DOI : 10.35280/KOTPM.2019.22.1.19

- [16] S. M. Han, S. L. Yoo. (2018). Exploring Grit Forming Environment in Physical Activity.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9(1), 1-16.
- [17] S. L. Yoo. (2019). Peering into the Mind-sets of Elementary School Athletes with High Grit Scores in Adversity.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30(4), 31-46.
- [18] M. R. Jung, E. Jeong. (2018).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414-423.  
DOI : 10.5392/JKCA.2018.18.06.414
- [19] M. S. Lee. (2019). The Influence of GRIT on Performance among Korea Military Academy Cade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6(5), 129-147.  
DOI : 10.14396/jhrmr.2019.26.5.129
- [20] B. R. Lee, Y. C. Lee. (2018). The Study of Exploring Construction and Conception of the Sports Grit.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7(6), 253-268.  
DOI : 10.35159/kjss.2018.12.27.6.253
- [21] M. H. Hwang. (2019). Exploring the Meaning of Grit and Interventional Implications for the Academic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8(1), 1-21.  
DOI 10.28972/kjec.2019.18.1.001
- [22] J. Y. Lee. (2019). A Concept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Grit Using Hybrid Model. *Crisisonomy*, 15(2), 141-153.
- [23] S. M. Han, S. L. Yoo. (2018). How to cultivate GRIT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4(3), 19-35.
- [24] H. B. Park. (2019). Strategy for Using Grit and Growth Mindset based on Questioning in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1(126), 117-149.  
DOI : 10.15801/je.1.126.201909.117
- [25] Y. S. Kang, J. H. Park. (2010). The Effect of the Program of Ecological Experience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10), 3680-3689.
- [26] C. S. Jun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ag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 675-684.  
DOI : 10.5762/KAIS.2020.21.1.675

## 홍 승 희 (Seung-Hee Hong)

[정회원]



- 1986년 2월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문학사)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행정석사)
- 2018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수료
- 1987년 9월~2021년 2월 : 중등교사
- 2016년 4월~현재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2021년 5월~미래비전연구소 대표
- 관심분야 : 교육공학, 교육과정, 인성 및 독서교육, 통일교육
- E-Mail : t-hsh@hanmail.net

## 현 용 찬 (Yong-Chan Hyun)

[정회원]



- 2014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행정석사)
- 2018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연우심리연구소 제주지부장
- 2017년 2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2018년 4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자문위원
- 관심분야 : 교육공학, 학습상담, 진로상담, 학습성격
- E-Mail : sgtkd@daum.net

## 박 정 환 (Jung-Hwan Park)

[중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
- E-Mail : edu114@jejunu.ac.kr